

인공수정기법 유감 —「최선이었나」를 묻고 싶다

원용주/보건신문 의학부장

인공수정기법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에 불임의 고통을 받아 오던 많은 부부들이 고통을 벗어 던지는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의미에서 오는 행복감이나 만족감은 첨단 의술을 통한 치료차원의 효용성 가치를 한껏 높인데서 찾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도입된 모든 진단기법이나 검사능력, 치료방법들이 의료차원에서의 효용성을 최대치로 높이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불임부부들에게 임신의 행복감을 가져다 주었던 인공수정기법 또한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의미의 행복을 준 것은 결코 아니다.

다시말해 일부 특정인이나 부분적인 차원에서의 공과가 있었다고 말 할 수 있다. 어떤 질환으로 인해 임신을 못하는 부부에게 적용돼야할 진단술이나 치료술이 태아 성감별 등에 활용되는가하면, 무책임한 인공임신 등의 부작용을 남기게 한 점이다.

최근 경희의료원 불임클리닉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한 기관의 문제뿐 아니라 전체 불임시술 의료기관의 공통된 문제로 봐야하며, 그동안 우리주변에서의 「인공수정」이라는 시술이 너무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희의료원 사건의 경우 ▲질병검사 ▲혈액검사 ▲유전질환검사 등의 세심한 사전진단없이 타인의(남편외의) 정자를 모체에 수정시켰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신선한 정액 사용에 있어서는 채취한 정액을 1~2시간 이내에 사용해야하는 단점 때문에 정액채취전의 문진 등을 통해 실시되며, 사전에 세심한 검사는 어



인공수정기법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에 불임의 고통을 받아 오던 많은 부부들이 고통을 벗어 던지는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료차원에서의 효용성을 최대치로 높이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려운 것이 통례라는 것이다.

그러나 냉동정자의 경우는 최소한 사전에 질병검사 등을 실시하고 사용돼야 하는 것이 학계에서의 국제적인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란단다.

일반인들에게는 어떤 형태의 방법으로 인공임신이 이루어 졌는가? 하는 의학적 전문성 보다는 정당한 기법의 적용이 있는가? 하는 책임성과 윤리성을 더욱 중요시하게 하는 것이다.

경희의료원 불임클리닉 사건이 사회문 제화된 것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세간에는 또 의료계에서조차도 『여타 다른 시술 기관이라고 이러한 일들이 없겠는가, 내부적으로는 이미 일반화 된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의 소리가 들리고 있어 윤리성은 더없이 중요한 것으로 거론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선 불임부부중 남편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의 정자를 이용해서 아기를 갖으려 한다면 ▲ 남편의 정액을 채취해 내기 위한 최대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 비뇨기와 영역의 진단을 받아 치료가능성 유무가 결정돼야 하며 ▲ 어떤 방법으로도 어렵고 무정자증이라는 확진이 돼야만 비로써 타인의 정자를 사용해 임신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병·의원에서 임신의 성공

및 진료수입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사전 진단이나 검사없이 성급한 체외수정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의료목적상 기법적용의 타당성, 의사의 양심, 정자를 받는쪽의 심리적 평가, 제공자의 심리적평가 등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또 정자은행을 설치하고 불임클리닉 등을 설치하여 인공수정기법을 이용한 치료를 하고 있는 기관들의 운영상 철저한 원칙과 절차가 마련되고, 지켜져야 하리라는 생각이다.

이처럼 시술기관들이 자체적인 엄격한 통제를 통해 문제점을 줄이고 의학적인 차원의 효용성 가치를 높여나가고자 하는 자정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체외수정의 기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술기관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의 적절한 규제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자은행의 설치나 운영에 있어서도 각급 의료기관이 임의로 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공신력있는 정부의 기관 또는 산하 대행기관이 이를 맡아서 하는 방안을 제언하며, 받는자나 제공자, 시술자의 사고에 「최선이었나」를 다시한번 묻고 싶다. ♣